

# 徐大椿의 醫學思想에 관한 考察

-臨床經驗과 醫論, 醫案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崔台熙 · 尹暢烈

## Investigation on Seo Dai-chun's medical ideology

Choi Tae-hee · Yun Chang-yeol

Seo Dai-chu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ttack on the miasma and created a school to follow classical medical books such as 『Nai Kyung』 and 『Sang Han Ron』. Intimate connection between the theory and clinical experience was a unique feature and future generation including Chin Su-won and Wang Tai-lim were deeply influenced. His medical theology and medical case is presented in 『Eui Hak Won Ryu Ron』 and 『Hoi Kye Eui An』.

---

### I. 緒 論

韓醫學은 數千年間의 悠久한 歷史속에서 發展하여 그 固有한 理論과 治法으로 人間을 疾病으로부터 지켜주었고 現在에도 보다 나은 疾病의 治愈와 人類의 健康을 위해서 不斷한 研究와 發展을 繼續하고 있다.

韓醫學의 醫學理論과 臨床의 發展은 《黃帝內經》과 《難經》, 그리고 《傷寒雜病論》의 三書を 基礎로 하여 이루어져 이후 諸家들의 研究와 實踐의 反復을 통하여 後代로 내려오게 되었다. 《黃帝內經》은 《素問》과 《靈樞》로 構成되어 戰國時代 以前의 모든 醫學의 知識과 數千年間의 累積된 醫學經驗을 黃帝와 岐伯이 問答形式으로 總結하여 韓醫學理論의 基礎를 다져 現在까지 韓醫學의 最高의 經典으로 崇仰받고 있다.

《黃帝內經》이후에는 東漢時代의 《難經》이 있는데 《黃帝內經》중에서 論難이 되는

問題를提起하여說明한著作으로《黃帝內經》과 더불어韓醫學理論의基礎를다졌다.東漢末期에張仲景이《內經》理論을根據로하고當時의有效驗方을널리求하여《傷寒雜病論》을著述하여韓醫學의辨證施治를體系化하고臨床醫學의基礎를다져《傷寒論》과《金匱要略》으로現在까지傳해지고있다.따라서韓醫學은理論에있어서는《內經》과《難經》을中心으로繼承發展하였고臨床醫學에있어서는《傷寒論》과《金匱要略》을中心으로發展을하게되었다.

그후《傷寒雜病論》과《內經》은많은醫家들에의해서研究되고實踐되어오면서理論이더욱體系化되고이에따라새로운理論들이創案되었으니자신들만의獨特한理論을主張하여韓醫學發展에많은貢獻을한醫學流派들이形成되었다.傷寒學派를비롯하여易水學派,河間學派및金元四大家등이出現하였고明代에는溫補學派가出現하여各各의學派들은서로의理論을體系化하고定立하여韓醫學理論의精密한研究가이루어지게되었다.

清代에이르러서는考證學의發達로인하여復古主義思想이盛行하였고實用의學問을重視하게되어臨床醫學이크게發展하게되었는데醫學界에있어서도尊經學派와溫病學派의兩大學派가形成되었다.

이러한時期에影響을받은徐靈胎는尊經學派의代表的인人物로서尊經崇古의復古的인學風을지닌醫學家로醫學의源流를重視하여《內經》《難經》《神農本草經》《傷寒論》등의古典을매우崇尚하여깊이研究分析하였으며이러한理論을바탕으로豊富な臨床實踐을가진臨床醫로일생동안많은著作을남겼다.특히그는《醫學源流論》에서當時醫學界의病弊를辛辣하게批判을하고自身の確固한議論을主張하여後世에많은影響을미쳤다.

이에著者는徐靈胎의醫學思想과臨床經驗,그리고그의醫案을《徐靈胎醫書全集》을中心으로研究하여얻은바를報告하는바이다.

## II. 研究內容

### 1. 臨床經驗

徐靈胎는이미매우깊은醫學理論을갖추었고이를바탕으로臨床에있어서도豊富な經驗을하였으니그가주장한많은理論들은모두臨床으로깊게體得한기초위에서總結하여이루어진것이다.《慎疾芻言》등의소수著作들은그의臨床經驗을總結한것인데이를除外하고그의임상경험을더욱集中的으로나타낸것은《外科正宗》과《臨證指南醫案》을批評한가운데에있으니특히《臨證指南醫案》을批評한것은그의臨床經驗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諸家들이 葉天士의 醫案을 評함에 대부분 좋은 言辭로 稱讚을 하여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主張을 옹호하여 이미 理解하기 힘든 부분에 대하여는 諸家들이 《傷寒論》을 대하는 것과 같이 종종 공교롭게 지나치고 덮어버렸으나 徐靈胎는 그렇게 하지 않고 或은 稱讚하고 或은 貶하되 반드시 根據를 두었다. 더우기 葉天士가 不足한 部分에 대하여는 慧眼으로 홀로 깨우쳤으니 臨床과 理論의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이와 같이 議論을 精密하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論文에서는 徐靈胎의 學術을 研究하고 實際臨床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例를 紹介하고자 한다.

### 1) 咳嗽

咳嗽의 主要病機는 肺氣가 上逆한 것으로 다만 病因이 多端한 것이니, 外感으로 인한 것은 風寒의 邪氣에 의해 表部の 氣機가 閉鬱하여 肺의 肅降機能이 喪失되어 逆하여서 咳嗽가 되는 것이고, 內傷으로 인한 것은 肺氣不足으로 起因하는데 혹 火熱을 兼하여 痰과 더불어 막히거나 혹은 陰虛하여 津液이 缺乏함으로 인하여 氣가 逆하여 咳嗽가 된다. 徐靈胎는 이러한 咳嗽의 基本治法은 ‘清降’이라 認識하였으니 清이라는 것은 外邪를 清하거나 痰飲을 清하는 것이고 降이라는 것은 火의 逆上이나 氣의 逆上을 내리는 것으로 모두 肺의 肅降機能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方藥中에서 升提의 藥이 섞임을 가장 꺼렸으니 升浮의 性을 가진 桔梗과 같은 藥은 咳嗽方中の 마땅한 藥이 아니라고 認識하여 “凡咳嗽中多用桔梗 桔梗升提 甘桔湯中用之 以載甘草上行 治少陰之喉痛 與治嗽宜清降之法非宜 服者往往令人氣逆痰升 不得著枕 凡用藥當深知其性 而屢試屢驗 方可對病施治 無得冒昧也”<sup>1)</sup>라고 하였다.

咳嗽에 대하여 葉氏醫案에는 크게 두가지의 治法이 실려 있으니 金水를 兼顧하거나 或은 肺胃를 同治하는 方法을 쓰되 養陰의 藥을 가장 잘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徐靈胎는 燥咳는 진실로 養陰의 法을 適用해야 하나 단순히 肺가 燥한 것은 드물고 肺氣가 不利한 것은 外感의 邪氣에 의한 것이 아니면 痰火나 伏飲에 의한 것이라고 認識하여 治療에 있어서 첫 번째로 升提를 忌하고 둘째로 滋膩함을 忌하였으니 升提의 法을 사용하면 肺氣가 더욱 逆上하고 滋膩의 法을 사용하면 肺氣를 더욱 壅塞하게 된다고 인식하여 葉氏의 法은 取할 것이 못된다고 認識하고 後人들이 이 그릇된 法을 따름을 批判하였다.

咳嗽는 肺病으로 肺氣는 清함으로서 貴함을 삼고 降함으로서 順함을 삼으니 攻補寒熱의 法에 상관없이 모두 肺氣를 清하게 하여 肅降의 機能을 다하도록 함이 옳은 治法이니 徐靈胎가 提示한 清降의 法은 廣義의 측면과 狹義의 측면으로 理解를 할 수 있다. 廣義의 清降은 肺氣의 肅降을 目的으로 하니 咳嗽治法의 要旨가 되고 狹義의 清降은 단순히 清火

1)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87.

降氣의 法을 이름이니 痰熱의 咳嗽에 適用된다. 臨床에 있어서 咳嗽은 多樣하여 外感, 內傷, 寒熱虛實등의 證을 分別해야 하니 外感으로 인한 咳嗽은 肺氣가 宣發하지 못함으로 인함이 많으니 마땅히 宣發해야 할 것이요 升提의 法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만일 肺가 火刑을 당하여 陰虛하여 肺氣가 燥하게 되면 葉氏의 金水, 肺胃同治의 法도 또한 옳은 方法이다. 만일 肺氣의 虛寒으로 인한 肺痿의 久咳는 清降의 法으로는 不可한 것이다. 各各의 咳嗽에는 모두 痰涎이 壅塞하여 기가 逆上하여 내려오지 않는 현상이 있으니 清痰, 清熱, 降逆의 藥으로 주의하여 治療할 것이요 단순히 翁보하는 藥을 써서는 안되니 徐靈胎가 葉氏醫案중의 建中湯으로 咳嗽을 다스리는 것은 評하여 이르기를 “凡屬嗽證 皆爲肺家有痰及火 建中總屬不宜 此老誤認仲聖虛勞用建中之說 害人甚多 余目擊者數人 而終不知悔.”라고 하였다<sup>2)</sup>.

以上에서와 같이 徐靈胎는 咳嗽을 다스림에 있어서 마땅히 清降의 法을 使用해야 하고 滋膩升提하는 藥劑는 氣해야 한다고 認識하였으니 實際臨床에 있어서 많은 研究를 해야 할 것이다.

## 2) 中風

劉河間, 李東垣, 朱丹溪, 張景岳등의 醫家들로부터 中風의 病因과 病機를 論함에 本病은 風邪에 직접 中하여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虛와 痰과 火에 의하여 發生한다 하였고 中風을 治療함에 있어서는 補虛의 法을 多用하고 심지어는 滋補填精의 藥으로 眞元을 大補하는 법을 사용하니 徐靈胎는 이에 대하여 中風은 비록 外邪에 의해 卒中한 것이 아니면 痰, 火에 의하거나 根本이 虛하여 發生한다고 認識하여 治療에 있어서 마땅히 祛邪의 法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祛邪의 法은 즉 祛風, 豁痰, 通絡등의 法이니 그가 이르기를 “余每年見中風之證 不下數十人 遵古治法 十有八九 服溫補之藥者 百無一愈 未甚服補藥者 尙可挽回 其不能全愈 或眞不治者 不過十之一二耳.”<sup>3)</sup>라고 하였다.

徐靈胎가 中風을 認識함에 있어서 病因과 病機에 대하여는 上記한 새로운 學說들을 다분히 肯定的으로 여겼으나 治法에 대하여는 도리어 古法을 따를 것을 주장하니 이것은 그가 善한 것을 擇하여 臨床에 適用하려 한 것이니 만일 古法이 臨床에 效驗이 없었다면 또한 새로운 治法을 사용했을 것이니 이미 古人들의 治法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比較하고 臨床에 크게 適用한 이후에 이와 같이 選擇하였으니 이른바 ‘遵古法’이란, 즉 먼저 祛實하는 法을 사용한 후에 補虛의 法을 사용함을 말한다.

葉氏醫案을 評함에 있어서 徐靈胎는 더욱 상세히 具體의인 施治方法을 說明하였으니 “凡風淫所勝之病 自內經以及唐宋各家 皆以辛涼甘寒爲主 而佐以驅風益血之藥 至河間有地黃飲

2)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阮廣安門醫院,1985,p.49.

3)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86.

子之法 此乃治腎虛痹症 有類中風 并非以此方治中風之急症 乃近日諸醫遇中風之症 總以人蔘桂附爲開手第一方 輕者不起 重者立死 問所從來 曰本之葉先生 余始亦信其說果從葉氏出 及閱此書 乃知此翁學有淵源 心思靈變 與前人所論 分毫不背 其人蔘亦于病勢已退後 用以培元益氣 當病甚時 必與驅風之藥同用 其分兩亦不過幾分至錢 無不中度”<sup>4)</sup>라고 하였다.

中風의 근본적인 原因은 비록 元氣不足에서 起因하나, 다만 元氣가 虛함으로 인하여 痰이 생하고 痰으로 인하여 氣가 阻塞되고 氣가 閉함으로 인하여 火가 動하니 이런 病理과정은 모두 實證에 속하는 것이고 中風의 發病은 매우 急速하여 每번 氣機가 閉遏하여 痰火가 升하여 막혀서 降泄하지 못하니 痰火를 제거하고 鬱閉된 氣機를 開通함이 急先務이다. 따라서 中風을 다스림에 古法을 쫓아서 먼저 痰火의 實邪를 除去하여 氣機를 소통한 後에 補虛하는 徐靈胎의 이러한 認識은 疾病에 臨함에 精確한 辨證을 통하여 施治를 해온 그의 臨床經驗에서 얻어진 것이다.

### 3) 脹滿

脹滿의 病은 漢代이전에는 利水, 行氣의 法을 爲主로 治療을 하였고 丹溪는 “濕熱壅塞 脾土轉輸失職 胃雖受穀 不能運化 故陽自升 陰自降 清者不升 濁者不降 而成天地不交之否”<sup>5)</sup>라 하여 脾虛濕熱에 의한 脹滿을 提示하였는데 그 이후로 後世醫家들은 더욱 ‘正虛’의 觀點으로 주의를 기울였고 治法도 補虛의 法을 爲主로 하였다. 가령 李仲梓나 虞搏등은 ‘氣虛’를 위주로 하였고, 喻嘉言이나 孫一奎등은 ‘命門火衰’를 위주로 하여 모두 補法으로 治療하였고 葉天士의 醫案中에도 또한 溫補의 法을 多用하였다. 이에 대하여 徐靈胎는 脹滿은 반드시 實邪가 있다고 하여 “脹滿之爲病 即使正虛 終屬邪實 古人慎用補法”<sup>6)</sup>이라 하고 “一味溫補是益其病也 內經云諸腹脹大皆屬於熱 不可背也”라고 하여 먼저 有形의 實邪를 攻下하고 以後에 病情을 살펴 調補의 治法을 쓸 것을 提示하였다. 그는 溫補의 法은 病에 無益하다고 認識하여 비록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큰 害를 가져온다고 하여 溫補의 法을 쓸을 反對하였다. 또한 “又脹必有濕 濕則有熱 內經所以指爲熱症 今多用溫補之藥 內雖有通利之品 而臣不勝主 貽誤必多 細閱諸案 恐愈者少 而不治者多也”<sup>7)</sup>라고 하여 方中에 마땅히 濕邪를 除去하는 藥을 君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病의 根本이 虛하고 標가 實한 것은 이른바 “即使正虛 終屬邪實”의 意味이니 虛實이 挾雜한 경우에는 虛와 實을 동시에 살피되 祛邪함을 중요시 하니 이것이 徐靈胎가 脹滿을 다스리는 큰 特徵이다. 《醫學源流論·用藥如用兵論》에서 이르기를 “若夫虛邪之體 攻不可過 本和平之藥 而以峻藥補之 衰弊之日 不可窮民力也 實邪之傷 攻不可緩 用峻厲之藥 而以常藥和之”<sup>8)</sup>라고

4) 葉天士 編著, 徐靈胎 評審, 臨證指南醫案,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68, p.19.

5)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卷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660.

6) 葉桂 編, 徐靈胎 評, 臨證指南醫案, p.232.

7) 葉桂 編, 徐靈胎 評, 臨證指南醫案, p.232.

하여 비록 攻法이라도 正氣가 虛함이 急하면 攻邪의 약은 緩慢히 하고 補正의 藥으로 峻補할 것이며 邪氣가 實하면 攻邪의 약은 빨리 쓰고 補正의 藥은 緩慢히 하니 脹滿에 대한 徐靈胎의 大法은 이와 같은 것이다.

脹滿의 病名은 意味가 막연하니 腹脹이라 稱하고 鼓脹이라 稱하지 않는 것은 脹滿의 病이 반드시 腹壁에 靑筋이 나타나는 症이 아니기 때문이다. 靑筋이 있는 것은 명확히 鼓脹이 되고 없는 것은 脹滿이 되니 이것이 古人의 分類方法이다. 本病은 모두 濕聚水溢한 것으로 制水는 脾土가 하고 化水는 陽氣가 하니 前人이 脾虛에서 起因한다고 인식하는 理由이고 水濕이 阻滯하게 되면 脾氣가 困倦하게 되니 水濕을 攻下하는 것을 強調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病이 처음 發生할 때에는 비록 脹滿하여도 반드시 元氣가 衰竭하는 것은 아니므로 攻裏하는 것이 빠른 效果를 나타낸다. 漢, 唐이전에 攻裏의 法을 주로 쓴 것은 本病이 濕聚한 證狀이 顯然히 드러나기 때문이고 金, 元, 明代의 數百年동안에 治法이 一變하게 되니 朱丹溪가 培土利濕함으로서 攻補를 兼施하고 溫補의 法이 興起함에 이르러서는 桂枝, 附子, 乾薑등의 藥으로 溫陽化水하여 補法을 爲主로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徐靈胎는 다시 한번 古今의 治法을 融會하여 各各의 長點을 取하였으니 病變의 原因을 論함은 後世의 正虛의 理論을 취하였고 病變의 治法을 論함에는 漢唐의 攻裏의 法을 취하였다. “攻不可過 本和平之藥 而以峻藥補之”라고 하여 正氣가 衰하고 邪氣가 微弱할 경우에는 攻補를 兼用하되 君臣佐使의 次序를 때에 따라 調整하였으니 이는 實際臨床에 있어서 豊富한 經驗으로 얻어진 것으로 脹滿病의 治療에 대하여 總結하고 發展을 시켜 後世醫家들에게 많은 影響을 미쳤다.<sup>9)</sup>

## 2. 學術流派와 後世에 미친 影響

### 1) 學術流派

徐靈胎의 學術思想은 멀리로는 張仲景을 추종하였고 가까이로는 各各의 법을 취하였다. 基礎理論의 研究方面에 있어서는 薛己, 李仲梓, 趙養葵, 張介賓등의 理論을 繼承하여 命門學說에 對하여 研究와 討論을 進行하여 그들과 같이 一脈을 踏襲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만 徐靈胎는 命門火說을 발전시켜 元氣說을 主張하였고 命門火의 概念에 있어서 多분히 先天的인 觀點에 偏重된 것을 五臟의 均衡에 의한 觀點으로 修整하였으니 이는 諸家들의 인식과는 큰 差異가 있는 것으로 先代를 繼承하여 後代를 啓發하는 役割을 하였다. 臨床治療의 方面에 있어서는 邪氣를 攻할 것을 가장 重視하였는데 正氣가 虛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邪氣가 오래되어 正氣를 耗損시킴으로 인함이니 진실로 正氣가 久虛하면 邪氣를 制御하지

8)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84.

9) 高 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52.

못하게 되어 마땅히 보법을 써야 하나 邪氣가 實하게 되면 더욱 마땅히 邪氣를 急祛 해야 하니 新病久病과 老幼婦人을 莫論하고 病邪가 있는 것을 쫓아 급히 攻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徐靈胎의 이러한 認識은 또한 攻邪의 治法을 善用한 張子和의 思想과 相近한 것이다. 《傷寒論》의 研究方法에 있어서도 徐靈胎는 寒溫을 統一하였는데 《難經》에 언급된 ‘傷寒有五’의 分類方法으로 仲景의 原作을 歸納하여 溫熱治法을 補完하였다. 또한 30여년간 原著內容을 精密하게 살피어 많은 方劑들을 歸類하였다. 徐靈胎는 일찍이 古方의 局限됨을 指摘하여 後世方을 推廣하였고 또한 宋代以後의 方劑의 偏雜함을 누누이 貶斥하고 漢唐時代의 方藥을 稱讚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學術思想의 特徵이 實用的인 側面을 重視함을 알 수 있다. 徐靈胎의 學術의 넓음은 古今을 包容하여 各家의 學術流派의 不同한 점을 交融하여 各家의 流派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sup>10)</sup>.

清代初期에 古典醫經의 研究方法과 治學方法, 學術主張과 學術成就등의 方面에서 徐靈胎는 매우 큰 貢獻을 하였다. 古典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는 當대에 尊經學派를 형성하였는데 이들은 《內經》과 《傷寒論》등의 古典醫書의 理論을 闡發하여 醫學理論을 提高하는데 주력을 하였다. 張志聰, 柯韻伯, 張錫駒, 尤在涇, 陳修園등이 尊經學派에 속하니 이들의 學術主張은 비록 같으나 各各 不同한 研究角度로 시작하여 不同한 治學方法으로 同一한 認識에 이르기 길은 달라도 歸鄉地는 同一하였다. 이러한 尊經學派의 諸家들은 《內經》의 基礎理論을 研究함에 치중하는 部類와 《傷寒論》의 方證研究에 중점을 두는 部類의 두 支派로 나뉘니 徐靈胎는 柯韻伯, 尤在涇, 陳修園등의 諸家들과 같이 張仲景의 學術을 研究하고 發展시킴에 더욱 중요시하는 一大流派를 형성하였다<sup>11)</sup>.

## 2) 學術成就와 意義

尊經學派의 學術成就是 張仲景의 《傷寒論》을 研究한 成就가 가장 크다 할 수 있으니 方有執, 喻嘉言이 《傷寒論》의 條文을 거듭 새로이 編次하고 歸類한 研究方法으로부터 다시 柯琴, 尤在涇, 徐靈胎의 三家의 勞力을 거듭하여 《傷寒論》에 대한 研究는 매우 深化되었다.

三家의 研究중에 柯琴은 方으로서 證을 分類하였으니 方劑名으로서 證候名을 命하여 證候辨識의 規律을 研究하였고, 尤在涇은 法으로서 證을 分類하였으니 各種治法을 낱낱이 나누어 正治, 權變, 斡旋, 救逆등의 法에 從屬하여 治療大法의 規律을 研究하였고, 徐靈胎는 柯琴과 같이 方으로서 證을 分類하였으니 藥物의 配伍原理와 加減規律을 깊게 研究하여 증상의 變化에 대한 比較를 進行하여 仲景의 深奧한 用藥原理를 研究하였다. 이러한 三家들의 《傷寒論》에 대한 研究는 後學을 매우 크게 啓發하여 傷寒方의 應用을 점점 더

10)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1985, p.57.

11)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58.

普遍되게 하고 다른 藥들의 應用도 또한 날로 더욱 廣範圍하게 하였으니 徐靈胎가 《傷寒論》을 研究한 學術成就是 後世의 稱讚을 받고 지금에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으로 많은 參考價値가 있다<sup>12)</sup>.

### 3) 後世에 미친 影響

徐靈胎의 學術的인 特徵은 理論과 實際 臨床과의 實踐이 매우 緊密하게 結合되어 後世에 重視를 받고 많은 影響을 미쳤다.

陳修園은 徐靈胎보다 60餘年 뒤에 나와 醫學發展史上에서 또한 매우 큰 貢獻을 한 大家로 그의 學術思想을 살펴보면 主要方面이 徐靈胎와 비슷하니 예를 들면 《靈素集注節要》, 《神農本草經讀》 등의 그의 代表的인 저작과 《傷寒論》과 《金匱要略》 등의 研究에 이르기까지 陳修園의 著述은 四大經典의 研究에 集中되어 있다. 이렇듯 研究方向만이 일치한 것이 아니라 두 醫家의 研究重點도 또한 매우 一致하니 모두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을 基礎로 하여 張仲景의 學問을 유독히 重視하였다. 또한 당시 醫學界의 病弊의인 方面에 대하여도 兩家의 觀點이 일치하였으니 徐靈胎가 《醫貫砭》에서 明代의 溫補學派의 偏頗的인 觀點을 糾正함을 이어서 陳修園도 또한 《景岳新方砭》을 지어서 溫補의 弊端을 指摘하였다.

以外에 徐靈胎는 醫學教育을 重視하였고 陳修園은 醫學水準의 向上과 普及의 方面에 있어서 中대한 貢獻을 하였다. 徐靈胎는 醫學水準이 높지 않고 學風이 混亂한 原因은 基礎理論을 疏忽히 함에 있다고 認識하여 《醫學源流論·醫學淵源論》에서 이르기를 “既不知黃帝神農之精義 則藥性及臟腑經絡之源不明也 又不知仲景制方之法度 則病變及施治之法不審也 惟曰某病則用某方 如不效 改用某方 更有一方服之二三十劑 令病者遷延自愈者 胸中毫無把握 惟以簡易爲主 自此以降 流弊日甚 而枉死載道矣”<sup>13)</sup>라고 하여 尊經할 것을 공언하고 醫學을 하려는 자는 源流를 窮究히 하여 全面繼承해야 한다고 呼訴하고 弊端을 糾正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生涯와 精力이 衰함을 恨歎하여 이르기를 “安得有參本草 究內經 熟金匱傷寒者出而挽救其弊 以全民命乎”<sup>14)</sup>라고 하였다. 陳修園은 醫學教育을 普及하는 方面에 있어서 卓越한 貢獻을 하였으니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原文을 淺注하여 《傷寒論淺注》와 《金匱要略淺注》를 著述하였고 아울러 書中の 方劑를 歌訣로 編成하여 쉽게 熟記할수 있도록 하였고 《醫學實在易》, 《醫學從衆錄》, 《醫學三字經》 등을 述하여 初學醫들이 쉽게 醫學에 接할 수 있도록 勞力하였다. 陳修園의 書籍이 세상에 나오지 數百年이 지났어도 지금에도 많은 醫家들이 읽고 찾고 있으며 그의 學術思想과 成就是 徐靈胎의 影響을 받아 그의 心志를 바로 反映하였다<sup>15)</sup>.

12)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58.

13)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125.

14) 上揭書



徐靈胎보다 100여년 뒤에 나온 王泰林도 또한 徐靈胎의 學術에 影響을 받았으니 王泰林은 당시의 名醫로 그가 總結한 治肝要法은 當代의 醫學界에서 名聲이 아주 높았다. 著書로는 《西溪書屋夜話錄》, 《環溪草堂醫案》, 《退思集類方》 등의 書籍이 있느니 그 중에 《退思集類方》은 徐靈胎의 《傷寒類方》을 根本으로 편집하고 《金匱要略》의 方劑와 後世方을 더하여 24類로 넓은 書籍이고, 《醫方歌訣申解》는 《蘭臺軌范》중에 있는 通治方部分을 基本하여 만든 것으로 또한 徐靈胎의 原作을 많이 따랐다<sup>15)</sup>. 以上에서와 같이 徐靈胎의 學術은 後世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

徐靈胎는 臨床의 大家로 當時에 이미 名聲이 멀리 傳播되었고 그가 남긴 著述은 後世에 자못 큰 影響을 미쳤으니 各種著作이 거듭 重版이 되어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 한때에는 徐靈胎의 名聲과 影響이 심지어는 葉天士를 능가하였으니 《醫學三書合刊》에서 이르기를 “靈胎, 天士 同以醫術得名 靈胎承電發之後 家學淵粹 其辨本草之精微 考素靈之軌范 鈇剖利弊 洞見本原 天士則天資穎悟 意斷若神 不盡得之學問 如芻言之宗傳治法 必衷一是 其于秘方 詭誕 辨之尤嚴 凡天士所用新奇之品 多靈胎所力誣者… 學者得靈胎之書而讀之 以之治已而明 哲保身 以之治人而謹慎寡過 天士之方 姑存以略采取焉”이라 하여 비록 葉天士에 대한 評價는 肯定的이지는 않았으나 다만 徐靈胎의 學術이 後人들에게 미친 影響을 알 수 있다<sup>17)</sup>.

### 3. 대표적 醫論

徐靈胎는 그의 著書인 《醫學源流論》에서 많은 醫論을 論하였으니 본 論文에서는 代表的인 醫論들을 아래에 紹介하였다.

#### 1) 知病必先知症論

“凡一病必有數症 有病同症異者 有症同病異者 有症與病相因者 有症與病不相因者 盖合之則曰病 分之則曰症 古方以一藥治一症 合數症而成病 則合數藥而成方 其中亦有以一藥治幾症者 有合幾藥而治一症者 又有同此一症 因不同 用藥亦異 變化無窮 其淺近易知者 如吐逆用黃連半夏 不寐用棗仁茯神之類 人皆知之 至于零雜之症 如內經所載 喘噦噫語 吞欠噎嘔 笑泣目瞑 噎乾 心懸善恐 涎下涕出 齧脣齧舌 善忘善怒 喜握多夢 嘔酸魄汗等症 不可勝計 或由司天運氣 或由臟腑生克 或由邪氣傳變 內經言之最詳 後之醫者 病之總名亦不能知 安能于一病之中 辨明衆症之淵源 則使病者身受其苦 備細言之 而彼實茫然不知古人以何藥爲治 仍以泛常不切之品應命 并用相反之藥以益其疾者 此病者之所以無門可告也 學醫者 當熟讀內經 每症究其緣由 詳其情狀 辨其異同 審其眞僞 然後遍考方書本草 詳求古人治法 一遇其症 應手輒愈 不

15)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 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59.

16)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 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59.

17) 上揭書, p.60.

知者以爲神奇 其實古聖皆有成法也”<sup>18)</sup>

하나의 病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의 症이 있으니 病同症異한 경우가 있고 하나의 症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原因이 있으니 症同病異한 경우가 있게 되니 이러한 緣故로 同病異治하고 異病同治의 法이 있게 된다. 徐靈胎는 病과 症의 概念에 대하여 體系的으로 分析하고 辨病과 辨證의 關係를 論述하여 識病의 重要性을 主張하였으니 識病하지 못하고 辨症만 한다면 辨症자체도 正確하지 않고 治法과 用藥에 있어서도 切中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治療의 關鍵은 辨病과 辨症을 精密히 함에 있다고 하였다.

## 2) 病症不同論

“凡病之總者謂之病 而一病必有數症 如太陽傷風 是病也 其惡風身熱自汗頭痛 是症也 合之而成爲太陽病 此乃太陽病之本症也 若太陽病而又兼泄瀉不寐 心煩痞悶 則又爲太陽病之兼症也 如瘧病也 往來寒熱嘔吐畏風口苦 是症也 合之而成爲瘧 此乃瘧之本症也 若瘧而兼頭痛脹滿咳逆便閉 則爲瘧疾之兼症矣 若瘧而下痢數十行 則又不得謂之兼症 謂之兼病 蓋瘧爲一病 痢又爲一病 而二病又各有本症 各有兼症 不可勝舉 以此類推 則病之與症 其分併何啻千萬 不可不求其端而分其緒也 而治之法 或當合治 或當分治 或當先治 或當後治 或當專治 或當不治 尤在視其輕重緩急 而次第奏功 一或倒行逆施 雜亂無紀 則病變百出 雖良工不能挽回矣”<sup>19)</sup>

하나의 疾病에는 그 病의 本症이 있고 同時에 兼症과 兼病이 있을 수 있으니 두가지의 病이 같이 보이거나 두가지의 症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徐靈胎가 或은 合治하고 或은 分治하고 或은 先治하고 或은 後治하고 或은 專治하고 或은 不治라고 말한 것이다. 두가지의 症이 같이 나타난 것은 오히려 쉽게 다스려지니 《傷寒論》의 合病, 并病과 같은 것으로 實은 하나의 病에 여러 症狀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고 두가지의 病이 相兼한 경우는 宿疾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新病에 感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先治와 後治를 잘 고려하여 적용해야 함이니 病勢의 輕重緩急을 잘 살피어 治療에 臨해야 하는 것이다.

## 3) 病同因別論

“凡人之所苦 謂之病 所以治此病者 謂之因 如同一身熱也 有風有寒 有痰有食 有陰虛火升 有鬱怒憂思 勞怯忠疰 此謂之因 知其因 則不得專以寒涼治熱病矣 蓋熱同 而所以治熱者不同 則藥亦迥異 凡病之因不同 而治各別者盡然 則一病而治法多端矣 而病又非止一症 必有兼症焉 如身熱而腹痛 則腹痛又爲一症 而腹痛之因 又復不同 有與身熱相合者 有與身熱各別者 如感寒而身熱 其腹亦因寒而痛 此相合者也 如身熱爲寒 其腹痛又爲傷食 則各別者也 又必審其食爲何食 則以何藥消之 其立方之法 必切中二者之病源 而後定方 則一藥而兩病俱安矣 若不問

18)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109.

19)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68.

其本病之何因 又兼病之何因 而徒曰某病以某方治之 其偶中者 則投之或愈 再以治他人 則不且 不愈 而反增病 必自疑曰 何以治彼效 而治此不效 并前此之何以愈 亦不知之 則倖中者甚少 而誤治者甚多 終身治病而終身不悟 歷症愈多而愈惑矣”<sup>20)</sup>

본 醫論은 病因의 重要性에 대하여 論하였는데 同一한 病症을 가지고 있더라도 各各의 病因은 같지 않으므로 結局에는 不同한 病이 되는 것이고 治法과 用藥에 있어서도 같지 않음이니 徐靈胎는 病症이 不同한 原因은 病因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여 病因을 잘 分別해야 한다고 하였다.

#### 4. 醫案

《洄溪醫案》은 徐靈胎의 많은 著作중에서 그의 獨特한 醫案을 실은 專門書籍으로 그의 該博한 醫學知識과 豊富한 臨床經驗을 反映한 核心的인 部分으로서 後世醫家들에게 아주 중요한 著作이다. 《洄溪醫案》에서 다뤄지고 있는 醫案은 총 87例이며 주로 內科, 外科, 婦人科醫案등 많은 범위의 病證을 다루었다. 醫案중에 사용된 藥物들은 平凡하고 病因과 病機, 病情의 辨別이 매우 分明하여 後世에 規範이 될 만하고 醫案중에 나타나는 理法은 그의 醫學思想을 研究함에 많은 보탬이 되니 이에 본 장에서는 그의 醫案중에서 數篇을 拔萃하여 아래에 紹介하고자 한다.

##### 1) 暑病亡陽의 治驗例

《例一》“蘆墟迓耕石 暑熱壞症 脈微欲絕 遺尿譫語 尋衣摸床 此陽越之症 將大汗出而脫 急以參附加童便飲之 少甦而未識人也 余以事往郡 戒其家人曰 如醒而能言 則來載我 越三日來請 亟往 果生矣 醫者謂前藥已效 仍用前方 煎成未飲 余至曰 陽已回 火復熾 陰欲竭矣 附子入咽則危 命以西瓜啖之 病者大喜 連日啖數枚 更飲以清暑養胃而愈 後來謝述昏迷所見 有一黑人立其前欲啖之 則寒涼入骨 一小兒以扇驅之曰 汝不怕辟歷耶 黑人曰 熬爾三辟歷 奈我何 小兒曰 再加十個西瓜何如 黑人惶恐而退 余曰附子古名霹靂散 果服三劑 非西瓜則伏暑何由退 其言皆有證據 亦奇事也”<sup>21)</sup>

《例二》“毛履和之子介堂 暑病熱極 大汗不止 脈微肢冷 面赤氣短 醫者仍作熱證治 余曰 此卽刻亡陽矣 急進參附以回其陽 其祖有難色 余曰辱在相好 故不忍坐視 亦豈有不自信而嘗試之理 死則願甘償命 乃勉飲之 一劑而汗止 身溫得寐 更易以方 不十日而起 同時東山許心一之孫倫五 病形無異 余亦以參附進 學室皆疑駭 其外舅席際飛篤信余 力主用之 亦一劑而復 但此證乃熱病所變 因熱甚汗出而陽亡 苟非脈微足冷 汗出舌潤 則仍是熱證 誤用則死 死者甚多 傷心

20)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69.

21)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49.

慘目 此等方非有實見 不可試也”<sup>22)</sup>

徐靈胎는 暑證을 治療함에 辛涼清透하고 養陰消暑하는 法을 상용하였으며 그의 醫案중에 많은 治驗例가 있으니 上記한 두가지 例는 傷暑하여 熱極한 變證을 다스린 例이다. 첫 번째 醫案에서는 이미 脈微欲絶하고 遺尿, 譫語, 尋衣摸床등의 證狀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는 誤治하여 발생한 結果로 暑熱壞症이 되는 것이니 陰液이 極傷하여 陽氣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 元氣가 大傷하므로 脈微欲絶하게 된 것이고 遺尿, 譫語, 循衣摸床등의 證狀이 나타나되 熱閉하고 心包에 痰이 阻한 증상은 없으니 이는 心の 液이 大脫하여 心神이 歸하지 못하여 일어난 證狀이다. 治療에 있어서는 陰液은 바로 回復되지 않으므로 도리어 元氣를 마땅히 급히 堅固히 해야하니 人蔘, 附子를 쓴 것이고 格陽의 證은 急補만을 할 수 없으니 童便을 가하여 同性으로서 求하여 導引하니 또한 仲景의 白通加人尿, 猪膽汁湯의 意味이다. 陽氣가 回復되어 땀이 그치기를 기다려 다시 填精救液의 治法을 쓰니 病機의 變化가 反復됨에 따라 治法도 그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니 蔘附를 주어 이미 效果를 보았는데 病機의 變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治療를 하였다면 반드시 陰液이 竭絶하여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醫案에서는 脈微肢冷한 證을 제외하고는 熱證을 나타내어 醫員이 細細히 살피지 못하고 여전히 熱證으로 治療하였으니 徐靈胎는 元氣를 爲主로 보아 大汗不止함은 이미 陽氣가 大脫한 것이라 인식하고 이에 病變의 특징에 의거하여 脈微肢冷함은 尙차 陽氣가 脫할 증후임을 考慮하여 果敢히 蔘附로서 回陽시키니 두 醫案에서 나타나는 主症이 서로 비슷하여 모두 蔘附로서 다스렸다. 治療의 先後에 있어서는 或者는 平소에 陽虛한 상태로 陰分이 아직 크게 상하지 않았으므로 滋膩한 약으로 津液을 急補하지 않았고 或者는 暑邪가 이미 消하여 다시 清涼의 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胃氣를 滋養하여 스스로 낫게 하였으니 어떤 종류의 疾病이라도 모두 常證과 變證을 알아서 證狀에 따라서 治療에 臨하였음을 알 수 있다. 熱이 亢盛하여 極하게 되면 亡陰이 될 수도 있고 亡陽이 될 수도 있으니 亡陽의 證을 要點하여 ‘苟非脈微足冷 汗出舌潤 則仍是熱證 誤用卽死’라고 하였다. 徐靈胎는 陰陽互根의 理致를 상세히 하여 亡陽과 亡陰의 治法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여 이르기를 “當陽氣未動也 以陰藥止汗 及陽氣之既動也 以陽藥止汗”<sup>23)</sup>라고 하였으니 暑證汗出을 다스림에 마땅히 寒涼으로서 하되 陽氣가 尙차 脫할 경우에는 반드시 溫固回陽의 方法으로서 治療한다고 하였다<sup>24)</sup>.

## 2) 痰喘亡陰의 治驗例

《例一》“蘇州沈母 患寒熱痰喘 洩其壻毛君延余診視 先有一名醫在座 執筆沈吟曰 大汗不止 陽將亡疑 奈何 非蔘附熟地乾薑不可 書方而去 余至不與通姓名 俟其去乃入 診脈洪大 手

22) 上揭書, p.50.

23)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一), p.69.

24)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69.

足不冷 喘汗淋漓 余顧毛君曰 急買浮麥半合 大棗七枚 煮湯飲之可也 如法服而汗頓止 乃爲立消痰降火之方 二劑而安 蓋亡陽亡陰 相似而實不同 一則脈微 汗冷如膏 手足厥逆而舌潤 一則脈洪 汗熱不粘 手足溫和而舌乾 但亡陰不止 陽從汗出 元氣散脫 卽爲亡陽 然當亡陰之時 陽氣方熾 不可卽用陽藥 宜收斂其陽氣 不可不知也 亡陰之藥宜涼 亡陽之藥宜熱 一或相反 無不立斃 標本先後之間 辨在毫髮 乃舉世更無知者 故動輒相反也”<sup>25)</sup>

《例二》“觀察毛公裕 年屆八旬 素有痰喘病 因勞大發 俯几不能臥者七日 舉家驚惶 延余視之 余曰此上實下虛之證 用清肺消痰飲 送下人蔘小塊一錢 二劑而愈 毛翁曰 徐君學問之深 固不必言 但人蔘切塊之法 此則聰明人以此銜奇耳 後歲餘 病復作 照前方加人蔘煎入 而喘逆愈甚 後延余視之 述用去年方而病有加 余曰 莫非以蔘和入藥中야 曰然 余曰宜其增病也 仍以蔘作塊服之 亦二劑而愈 蓋下虛固當補 但痰火在上 補必增盛 惟作塊則 蔘性未發 而清肺之藥已得力過腹中 而人蔘性始發 病自獲痊 此等法 古人亦有用者 人自不知耳 於是羣相歎服”<sup>26)</sup>

以上的 두 가지 醫案은 陰虛한 體質에 痰喘病을 가진 例로서 첫 번째 醫案에서 喘汗淋漓한 證狀은 陽氣가 脫하려는 證狀과 자못 비슷하지만 手足不冷하고 脈이 또한 洪大함으로 陽虛의 證이 아님을 알 수 있고 寒熱을 兼하고 있음은 外感의 邪氣가 尙在하여 肺의 衛分을 侵犯한 것이니 이는 이미 陽虛하여 생긴 宿疾이 아니며 하물며 脈도 또한 洪大하니 溫陽止汗의 法을 使用함이 不可한 것이다. 肺熱이 壅盛하여 津液이 外滲되어 喘汗淋漓의 證이 나타나니 이는 亡陰의 證으로 마땅히 正氣를 급히 固해야 하니 浮麥, 大棗로서 外滲되는 津液을 收斂하고 아울러 浮擾하는 心氣를 安定시키고 계속하여 消痰降火의 法을 적용하여 肺氣가 진정이 되고 痰喘이 回復됨이니 本例에서는 먼저 斂汗의 法을 써서 正氣의 損傷을 막고 이후에 邪氣를 攻하니 症勢가 急하면 먼저 그 表證을 다스려 正氣를 견고히 한 연후에 本治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醫案은 平素에 痰喘의 病이 있음으로 보아 正氣가 이미 虛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肉體를 수고롭게 하여 病이 大發하여 正氣가 반드시 極虛하게 되고 喘逆이 甚하여 邪氣가 더욱 壅盛하여 實하게 되니 비록 汗出過多로 인한 脫盡의 증상은 없지만 元氣가 이어지지 않아 根本이 大虛하게 되고 痰涎이 더욱 壅盛하여 喘逆이 심하게 된 것이다. 만일 한갓 清痰降火의 法만을 쓴다면 元氣가 더욱 虛해져서 正氣가 먼저 脫하여 邪氣의 實함을 除去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만일 또한 固攝의 法만을 쓴다면 壅補하여 痰을 더욱 盛하게 할 것이니 徐靈胎는 이에 清肺消痰의 藥으로 人蔘小塊를 送下하게 하였으니 呂滄州가 上熱中寒證을 治療함에 理中丸에 紫雪丹으로 作衣하여 使用함과 意味가 相同하니 그의 臨床手法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25)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57.

26)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58.

27)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70.

### 3) 類中風의 治驗例

《例一》“運使王公敍揆 自長蘆罷官歸里 每向余言手足麻木而痰多 余謂公體本豐腴 又善飲啖 痰流經脈 宜搏節爲妙 一日忽昏厥遺尿 口噤手拳 痰聲如鋸 皆屬危症 醫者進蔘附熟地等藥 煎成未服 余診其脈 洪大有力 面赤氣粗 此乃痰火充實 諸竅皆閉 服蔘附立斃矣 以小續命湯去桂附加生軍一錢 爲末 假稱他藥納之 恐旁人之疑駭也 戚黨莫不譁然 太夫人素信余 力主服余藥 三劑而有聲 五劑而能言 然後以消痰養血之藥調之 一月後步履如初”<sup>28)</sup>

《例二》“新郭沈又高 續娶少艾 未免不節 忽患氣喘厥逆 語澁神昏 手足不舉 醫者以中風法治之 病益甚 余診之曰 此內經所謂痲證也 少陰虛而精氣不續 與大概偏中風 中風 痰厥 風厥等病絕不相類 劉河間所立地黃飲子 正爲此而說 何醫子反忌之也 一劑而喘逆定 神氣清 聲音出 四肢震動 三劑而病除八九 調以養精益氣之品而愈 余所見類中風而宜溫補者 止此一人 識之以見余并非禁用補藥 但必對證 乃可施治耳”<sup>29)</sup>

以上的 두 醫案은 類中風昏厥의 例로 하나는 虛證이고 다른 하나는 實證이다. 첫 번째 醫案은 素體가 風腴하고 飲淡을 즐겨 濕熱이 蘊積한 例로서 平素에 痰多하여 手足麻木함은 痰濕이 內盛하여 經絡을 阻滯한 症狀이고 發病이 급작스럽고 昏厥함에 遺尿의 症狀을 同伴하니 中風의 脫證과 비슷하나 다만 口噤, 手拳, 痰聲如鋸의 證狀이 있으니 이는 氣閉의 證이고 脈이 또한 洪大하고 面赤氣粗하니 痰火로 인한 閉證임을 알 수 있다. 이에 徐靈胎는 痰火充實하여 諸竅가 다 閉한 것이라 단정하고 小續命湯의 辛香으로 開竅하고 川軍末을 넣어 積熱痰火를 攻瀉하니 痰火가 清降하여 氣道가 通暢하게 되고 이어서 消痰養血하여 根本을 다스리고 經脈을 濡養하고 空竅를 填塞하게 하니 이는 古人의 ‘治風先治血 血行風自滅’의 뜻과 符合하는 것이다. 두 번째 醫案은 平素에 腎虛의 證狀이 있다가 돌연히 發病하여 厥逆, 神昏, 語澁의 證狀을 나타나되 다만 口噤, 握拳등의 閉證이 없고 또한 撤手, 遺尿, 口開등의 脫證이 없고 오직 氣喘의 證만이 보이니 이는 元氣가 不續하여 根本이 不固함을 알 수 있다. 이런 證狀에 消風祛邪하는 中風法을 쓰면 病이 더욱 惡化되고 元氣가 더욱 虛해지게 되니 徐靈胎는 語澁을 主證으로 하여 《內經》에 이른바 “內奪而厥 則爲瘖痲 此腎虛也 少陰不至者 厥也”<sup>30)</sup>를 根據로 하여 이는 少陰精氣가 虧虛하여 生한 痲證이라 認識하였으니 本病은 평소에 腎元이 不充하여 發病함에 精氣가 不續한 證狀을 나타내니 眞陰이 虧損되어 水不涵木하여 龍雷의 火가 逆하여 厥하게 되니 痰水가 壅盛하여 心竅를 鬱閉한 證과는 같지 않으니 河間의 治法을 받들어 地黃飲子를 投與하니 山茱萸, 麥門冬, 五味子, 石斛, 肉蓯蓉, 巴戟 등으로 填精補腎하고 다시 肉桂와 附子로 引火歸源하고 石菖蒲, 遠志, 茯苓으로 寧心하여 心腎이 安定하게 하여 上下가 交濟하게 되니 陰陽이 平衡을 이뤘 낮게 된 것이다<sup>31)</sup>.

28)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38.

29)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42.

30) 洪元植 編著,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184.

## 4) 吐血의 治驗例

《例一》“嘉興王蔚南 久患血證 左脅中有氣逆衝喉旁 血來有聲如沸 戊子冬 忽大吐數升 面色白而帶青 脈微聲啞 氣喘不得臥 危在旦夕 余以阿膠三七等藥 保其陰而止其血 然後以降火納氣之品 止其衝逆 復以補血消痰 健脾安胃之方 上下分治 始令能臥 繼令能食 數日之後 方能安臥 大凡脫血之後 斷不可重用人蔘升氣助火 亦不可多用滋膩以助痰滯胃 要知補血之道 不過令其陰陽相合 飲食漸進 則元氣自復 非補劑入腹 則變爲氣血也 若以重劑塞其胃口 則永無生路矣 況更用溫熱重劑 助陽燦陰而速之死乎”<sup>32)</sup>

《例二》“平望鎮張瑞五 素有血證 歲辛丑 余營葬先君 託其買磚灰等物 鄉城往返 因勞悴而大病發 握手泣別 謂難再會矣 余是時始合瓊玉膏未試也 贈以數兩而去 自此不通音問者三四載 一日鎮有延余者 出其前所服方 問何人所寫 則曰張瑞五 曰今何在 曰在館橋之右 即往候之 精神強健 與昔迥異 因述服瓊玉膏後 血不復吐 嗽亦漸止 因涉獵方書 試之頗有效 以此助館穀所不足耳 余遂導以行醫之要 惟存心救人 小心敬慎 擇清淡切病之品 俾其病勢稍減 即無大功 亦不貽害 若欺世徇人 止知求利 亂投重劑 一或有誤 無從挽回 病家縱不知 我心何忍 瑞五深以爲然 後其道大行 遂成一鎮名家 年至七十餘而卒 瓊玉膏爲治血證第一效方 然合法頗難 其時不用人蔘 祇用人蔘鬚生地即以浙中所出鮮生地 打自然汁熬之 不用乾地黃 治血證舍此無有無弊者”<sup>33)</sup>

以上の 두 醫案은 모두 血證을 오래 앓은 例로서 하나는 氣逆하여 胃에 病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氣虛하여 病이 肺에 있는 것이다. 첫 번째 醫案은 病程이 비록 오래되었어도 左脇部에 氣逆하여 衝喉한 證狀을 나타내니 平素에 肝氣가 失調하여 鬱逆한 것을 알 수 있고 忽然히 大量으로 吐血하니 이는 鬱滯가 極에 달하여 氣가 逆하여 血을 迫한 것이며 大量으로 失血하여 面色이 蒼白한 亡血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다. 證狀이 비록 氣逆한 實證처럼 보이나 다만 亡血한 후에는 氣가 반드시 虛하게 되어 元氣가 不繼하게 되니 脈微聲啞하고 氣喘不得臥한 證狀이 나타난 것이다. 大量으로 吐血함에 우선 急히 止血해야 하니 阿膠, 三七根으로 止血, 消瘀, 寧血하여 吐血을 그치게 하고 降火納氣하는 약으로 衝逆함을 그치게 하고 다시 補血消痰하고 健脾安胃하는 方劑로 다스려 胃氣를 調和하여 飲食을 漸進케 한즉 元氣가 스스로 回復되니 만일 補氣의 법을 썼다면 氣機를 더욱 壅塞하게 하고 補血의 법만을 썼다면 더욱 滋膩하게 되어 도리어 痰이 생하여 胃氣를 滯하게 하여 낫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두 번째 醫案은 平素에 血證을 가지고 있다가 勞悴함으로 因하여 發病하니 氣가 虛하여 능히 攝血하지 못하는 證을 나타낸 것이다. 瓊玉膏는 肺痿, 肺癆, 陰虛咳血등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徐靈胎는 단지 蔘鬚를 사용하여 補하되 지나치

31) 高鐸 編著, 精于辨證의 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72.

32)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66.

33) 清·徐靈胎 著, 徐靈胎醫書全集(卷三), p.64.

게 溫케하여 도리어 虛火를 助長함을 念頭하였고 生地黃을 사용하여 乾地黃의 滋膩함을 避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配伍는 補하되 막히지 않게 하고 滋하되 膩하지 않게 함이니 徐靈胎가 血證을 다스림에 淸靈한 藥劑를 善用하여 自然的인 生機를 가장 重視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 Ⅲ. 結 論

淸代의 代表的인 尊經學派 醫家인 徐靈胎에 대해 그의 醫學思想을 臨床經驗과 醫案을 중심으로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徐靈胎는 體系의이고 深度있는 醫學理論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臨床에 있어서도 豊富한 經驗을 하였으니 그가 主張한 많은 理論들은 모두 臨床의 基礎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臨床治療의 方面에 있어서 邪氣를 攻할 것을 가장 重視하였으니, 咳嗽는 마땅히 淸降의 法을 쓰고 滋膩升提함을 忌하였고, 中風은 先祛實하고 後補虛함을 主張하였고, 脹滿은 虛實이 并存하니 攻邪를 爲主하였다.
3. 徐靈胎는 《內經》과 《傷寒論》등의 古典醫經의 理論을 研究하는 尊經學派를 形成하였고 특히 張仲景의 學術을 研究發展시키는 一大流派를 형성하여 《傷寒論》을 ‘以方類症’의 方法으로 研究하였다.
4. 徐靈胎의 學術的인 特徵은 理論과 實際臨床과의 實踐이 매우 緊密하여 後世에 많은 影響을 미쳤으니 陳修園과 王泰林등이 그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
5. 徐靈胎는 그의 著書인 《醫學源流論》에서 많은 醫論을 論하였으니 知病必先知症論, 病症不同論, 病同因別論 등은 대표적인 그의 醫論으로 그의 確固한 醫學思想을 反映하였다.
6. 《洄溪醫案》은 徐靈胎의 醫案을 실은 專門書로 그의 該博한 醫學知識과 豊富한 臨床經驗을 反映하니 醫案 중에 나타난 理法方藥은 그의 醫學思想을 研究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34) 高 鐸 編著, 精于辨證의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p.73.



## 參考文獻

1. 清·徐靈胎 著, 林直清 校勘,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1969.
2.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卷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 葉天士 編著, 徐靈胎 評審, 臨證指南醫案,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68.
4. 高 鐸 編著, 精于辨證的徐靈胎, 北京, 中國中醫研究院廣安門醫院, 1985.
5. 張仲景 著,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6.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7. 朱震亨 著, 方 廣 編註,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1990.
8. 洪元植 編著,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